

편집자의 힘 소중히 여기는 출판사

프랑스 문학출판사 '그라세(GRASSET)'

박재환

도서출판 동문선 주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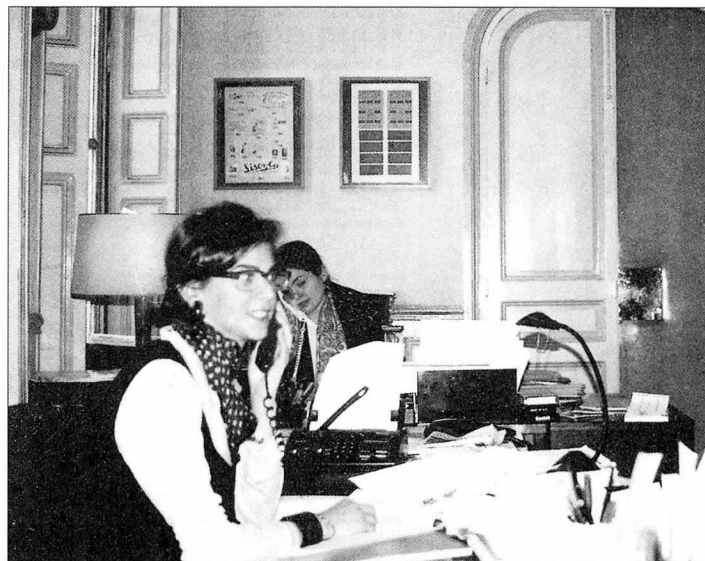
1년에 약 130여 종의 책을 출간하는 '그라세'는 프랑스에서 그리 크지 않는 출판사이다. 우리의 출판 현실에서 그 정도의 발행 종수를 가졌다면 정상급 출판사이겠지만 프랑스에서는 비교적 규모가 작은 출판사에 속한다. 더욱이 그라세 출판사는 1907년에 창설됐으니, 50년의 역사가 출판 고령에 드는 우리나라와는 많은 거리가 있는 셈이다.

그라세는 파리의 중심부인 오데옹-생 제르맹 지역의 생 페르(Saints-Peres) 길에 자리잡고 있다. 그라세가 자리잡고 있는 반경 500미터 이내에는 쇠이유, 갈리마르, 아셰트, 파야르, 플라마리옹, 미뉴이 등 프랑스의 유명 출판사들이 자리하고 있어 이 지역이 파리의 지식 창고임을 한눈에 알 수 있다. 장-클로드 파스켈(Jean-Claude Fasquel) 사장과의 인터뷰를 위해 그라세 출판사를 방문했을 때, 오랜 지기이며 친구인 마리-엘렌 도비디오가 문앞까지 나와 나를 맞이해 주었다. 그녀는 해외저작권 책임자로 일하고 있는데 이 출판사에서만 27년 동안 일해 왔다고 한다.

자타가 공인하는 문학전문 출판사

그라세에는 현재 47명의 인원이 1년에 130여종의 책을 만들고 있다. 이 가운데 50여 종이 소설이며 나머지가 에세이, 도큐먼트, 포켓판(붉은 노트란 의미의 Cahiers de Rouge라는 명칭이 붙어 있는데 빨간 표지의 양장본은 책들이다), 어린이물과 인문·사회과학 책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 가운데 그라세의 주력 품목은 아무래도 소설이다. 물론 발간되는 소설 종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 문학성은 이미 자타가 공인하는 바이다. 프랑스 문학상 가운데 으뜸이라 할 '공쿠르 상'을 가장 많이 수상한 작품과 작가를 배출한 곳이 그라세이다. 최근에는 그 수상 횟수가 뜸하긴 하지만, 2년 전 통계에 의하면 갈리마르 출판사보다 두차례 더 수상했다. 가장 최근에 그라세에서 출간된 소설 가운데 공쿠르상을 수상한 작품은 얼마전 우리나라에도 소개된 바 있는 아민 말루프(Amin Maalouf)의 《타니 오스의 바위》(1994)와 얀 케펠렉(Yann Queffelec)의 《야만의 결혼》 등이다. 그라세가 문학성 있는 작품들을 출간하는 출판사



라는 사실은 마르케스와 움베르토 에코의 프랑스어판 전문출판사인 사실에서도 알 수 있다.

하지만 최근에는 인문사회과학 출판물도 활발하게 출간하고 있다. 우리나라에도 알려진 바 있듯이 베르나르 앙리 레비가 책임 편집을 맡고 있는 <철학교(College de philosophie)> 총서는 새로운 인문과학 총서로서 대단한 평가를 받고 있다. 이 시리즈들은 가장 우수한 에세이 저작에 주어지는 메디시스(Medicis) 상을 수차례 수상, 상당히 영향력 있는 총서임을 한눈에 알 수 있다. 뤽 페리(Luc Ferry)의 《새로운 생태질서(Le nouvel ordre ecologique)》(1992년 메디시스상 수상)와 파스칼 부뤼크네(Pascal Bruckner)의 《순진무구함의 유희(Le Tenation de l'Innocence)》(1993년 메디시스상 수상) 등이 있다. 프랑스에서 1990년도 비소설 부문에서 공전의 판매를 기록한 《미학적 인간(Homo Aestheticus)》도 이 총서의 하나다.

문학 문고본으로서, 붉은 노트란 뜻의 <카이에 드 루즈> 총서는 문학고전을 꾸준히 펴내고 있다. 좋은 책을 저렴하게 보급한다는 뜻에서 30프랑(우리 돈으로 5000원 정도) 미만의 책들이 대부분이다. 이 총서 가운데는 프랑수아 모리악·앙드레 지드·빅토르 유고 등 고전작가들의 작품이 망라돼 있는데, 최근에는 이 총서에 공상과학소설도 포함시키기 시작했다. "프랑스 젊은이들도 순수 고전을 점점 외면하는 추세라 이들을



그라세 출판사의 장 클로드 파스켈 사장(오른쪽 위)과 편집팀. 그라세 출판사의 역사를 증명하는 문건들(아래).

독자로 끌어들이려는 교육지책"이라는 게 파스켈 사장의 고백이다.

아동물에도 관심을 보이고 있으나 아직은 그리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는 못하다. 발간하는 도서들의 종류로 미루어볼 때 아무래도 그라세 출판사는 문학전문 출판사로 우리 뇌리에 남아 있을 수밖에 없을 듯하다.

정돈된 체제로 편집자들 독립성 인정

그라세 출판사는 현재 47명의 인원이 총 9개의 부서로 나뉘어 일하고 있다. 기획, 편집위원회와 문학편집팀, 관리 및 회계팀, 해외저작권팀, 번역출판팀, 제작팀, 도서배본과 수출팀, 홍보팀, 아동물팀 등. 이 가운데 문학편집팀과 홍보팀의 인원이 가장 많다. 편

집팀에는 21명이 일하고 있는데, 이들이 그라세 출판물 전체의 85% 가량을 소화한다.

문학팀 인원이 가장 많은 것은 당연하겠지만, 홍보팀 인원도 만만찮은 것을 생각하면 참 특이하다. 프랑스에서는 책광고가 비교적 많지 않기 때문이다. 신문과 방송 등의 매체에서 도서를 소개하거나 그와 관련된 프로그램이 많다는 것을 알고 나서야 비로소 납득이 갔고 한편으로는 무척 부럽다는 생각까지 들었다. 책소개 관련 프로그램 가운데 현재 '안테스 2' 방송국에서 진행하는 <부이용 드 쿨트리(Bouillon de culture)>는 금요일 밤 황금시간대인 9시에 새로 나온 책들을 소개하는 수준 높은 책정보 프로그램. 여기에 소개된 책들은 그 수준과 판매

귀중한 정보 찾아내는 보물지도

전세계 출판인이 보는 《퍼블리셔스 위클리》 홈페이지

김두환 · 도서출판 해냄 기획부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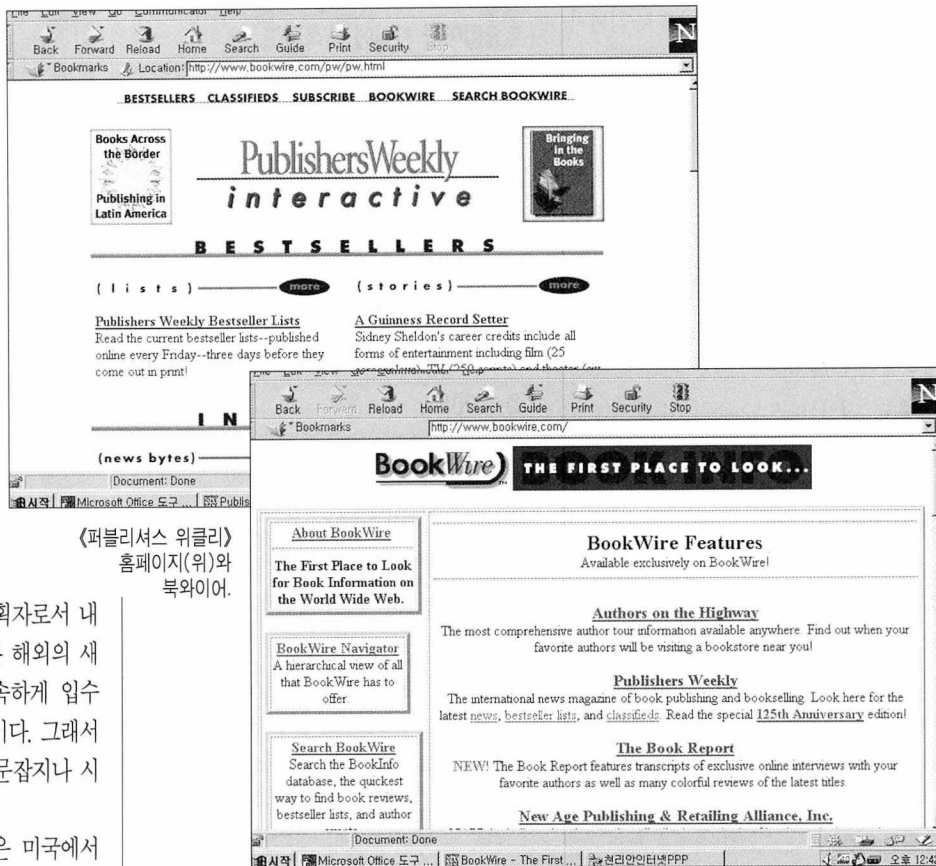
그라세 출판사를 돌아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출판사에서
발간하는 책들이 아니라
좋은 책을 선별하는 기획과
편집자들의 독립성, 그리고
잘 정돈된 체제라는 생각이
들었다. 서구 출판사들 대부분이
그렇듯이 그라세가 가장
귀중하게 생각하는 것은
편집자의 힘이다.

를 보장받고 있다.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출판사에서 발간하고 있는 책들이 아니라 책을 선별하는 기획과 편집자들의 독립성, 그리고 잘 정돈된 체제라는 생각이 들었다. 대부분의 서구 출판사들이 그러하듯 그라세가 가장 귀중하게 생각하는 것은 편집자들의 힘이다. 1년 예산의 편성과 이에 따르는 각 부문별 발간 중수의 결정까지는 경영진의 몫이고 그 이후부터 필요한, 즉 작가섭의 및 기타 모든 것들은 철저하게 실무진의 몫이다. 그만큼 실무진의 힘은 막강했다. 발간할 책들을 몇 사람이 결정하고 편집의 경우에도 세세한 부분까지 경영자가 간여하는 우리나라의 경우를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 출판예고제 또한 철저하게 지켜지고 있다. 새 회계연도 6개월 전에 그 해에 발간할 책들이 결정되고 약 3개월 전에 서점에서 판매될 날짜까지 공시하는 풍토를 우리는 철저하게 배워나가야 한다.

그라세에는 현재 2700여 종의 책들이 목록에 올라 있다. 이 출판사의 역사에 비하면 그리 많은 종수가 아닐는지 모른다. 하지만 일관하여 문학, 그것도 좋은 소설들을 고집하고 있는 이 출판사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은 바로 좋은 책이 상업성을 가진다는, 어찌 보면 가장 평범해보이는 진리를 묵묵하게 실천하는 것이 아닐까? 우리나라 출판풍토에서는 요원한 사항일지도 모르지만 이같은 출판의 고집은 아무리 칭찬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

올해로 창간
125주년을 맞이한
출판전문지
《퍼블리셔스 위클리》의
홈페이지에는
베스트셀러 동향은
물론 출판관련 기사와
주요 출판사의
신간이 친절하게
소개돼 있다.



《퍼블리셔스 위클리》
홈페이지(위)와
복와이어.

새로운 책을 기획하는 출판기획자로서 내게는 국내 출판계의 동향은 물론 해외의 새로운 출판물에 대한 정보를 신속하게 입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다. 그래서 되도록 여러가지 외국의 출판전문잡지나 시사잡지를 구독하게 된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에서 발행되는 출판 전문지인 《퍼블리셔스 위클리 (Publishers Weekly)》이다. 올해로 창간 125주년을 맞이한 이 잡지는 전세계 출판인들에게 가장 널리 읽히는 잡지 중 하나다. 우리나라로 치면 《출판저널》쯤에 비교해야 할까? 그런데 외국에서 우편으로 이 잡지를 받다 보니 연간 수십만원이나 하는 구독료를 내면서도 2~3주가 지난 고문서(?)가 된 후에야 겨우 받아보게 된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다. 2~3주나 지난 베스트셀러 목록은 도저히 발빠른 정보라 할 수 없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2년전 인터넷을 뒤지다가 우연히 《퍼블리셔스 위클리》의 홈페이지(<http://www.bookwire.com/pw/pw.html>)가 만들어진 것을 발견했을 때 나는 컴퓨터를 부동켜 안고 만세라도 부르고 싶은 기분이 들었다. 거기에는 한 주가 채 끝나기도 전인 금요일에 이미 다음주 월요일자 베스트셀러 목록이 소설·비소설·페이퍼백 등 부문별로 빠짐없이 올라와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때 내가 느낀 흥분은 아마 타임머신을 타고 날아가 그 다음주 주택복권 당첨번호를 미

리 훑쳐보는 짜릿함과 비슷했을까?

《퍼블리셔스 위클리》 홈페이지는 한마디로 출판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하다. 그곳에는 베스트셀러 목록과 각 베스트셀러의 동향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순위변화 및 누계가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으며, 그 책들을 30% 정도 할인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아마존(<http://www.amazon.com>)이나 워즈워드(<http://www.wordsworth.com>)와 같은 인터넷 서점들이 링크(link)되어 있다. 또한 흥미로울 뿐 아니라 정보로서의 가치도 높은 각종 출판관련 기사들과 주요 출판사에서 나온 신간에 대한 친절한 소개도 실려 있다. 특히 《퍼블리셔스 위클리》는 계절별로 한번씩 주목할 만한 책들을 간추려 특집으로 소개하기도 하는데, 현재는 올가을에 새로 나올 신간에 대한 정보를 분야별로 모아 놓은 특집 기사가 마련되어 있다.

그 밖에도 전세계의 도서전, 세미나 등 각종 출판관련행사 일정표가 마련되어 있는가 하면, 아시아지역 담당기자인 샬리 테일러는

일본·한국·대만·홍콩·필리핀 등 아시아 국가의 출판현황을 정리하고, 각국의 주요 에이전시 및 연락처까지 제공하고 있다. 이곳에는 책과 관련된 출판사 및 잡지사, 인터넷 서점의 웹사이트들이 치밀하게 링크되어 있어 초보자도 쉽게 자료를 찾을 수 있게 해준다.

《퍼블리셔스 위클리》가 속해 있는 《복와이어》(<http://www.bookwire.com>)는 그 외에도 《보스톤 북리뷰》 《뉴아시아 퍼시픽 리뷰》 등 각종 서평지의 홈페이지들이 수록되어 있으며, 노벨상을 비롯한 주요 문학상에 대한 소개와 역대 수상작 및 작가에 대한 정보도 담겨 있다.

왕초보에게는 아무리 눈썰고 찾아봐도 이정표 하나 없는 망망대해 같지만 한 인터넷의 바다에서 《복와이어》와 《퍼블리셔스 위클리》의 홈페이지는 귀중한 정보를 찾아내는 보물지도 같은 것이다. 그것도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얻을 수 있는. ♦